



유럽 증시, 지정학적 갈등 및 독일 GDP 부진에 하락

유럽 증시 리뷰

15 일(월) 미 증시는 휴장한 가운데, 유럽증시는 중동 지정학적 갈등 고조, 독일 GDP 역성장 및 ECB 위원의 매파적 발언에 하락 마감 (STOXX 600 -0.5%, DAX -0.5%, CAC 40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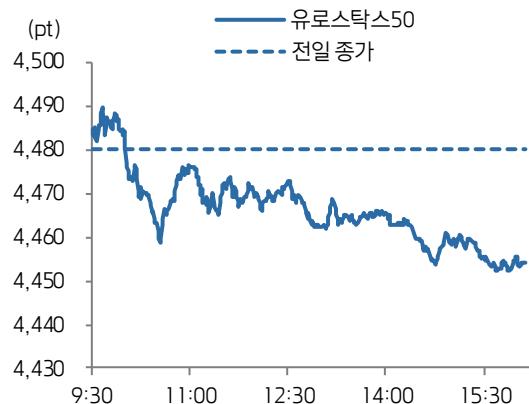
ECB 내 매파로 통하는 로버트 홀츠만이 올해 내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4 월 금리 인하와 관련한 질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이어 "최근 몇 주간 우리가 본 것은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올해에는 인하가 아예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

미국이 홍해에서 미 군함을 향해 날아온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대함 순항미사일을 격추. 미국은 지난 12 일 영국과 함께 예멘 내 후티 반군 본거지를 타격했으며 다음 날에는 예멘에 위치한 반군 레이더 시설을 공격. 이에 이슬람권 국가들이 반발하며 중동 역내 확전의 긴장감이 고조. 이에 카타르 국영 에너지회사 카타르에너지스는 15 일 안보상 이유로 홍해상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

독일 통계청은 2023년 경제성장률이 -0.3% 감소한 것으로 발표,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8%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비중이 커 고금리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타격을 주변국보다 더 크게 받았다고 분석. ECB가 금리 인하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2년 연속 경기 부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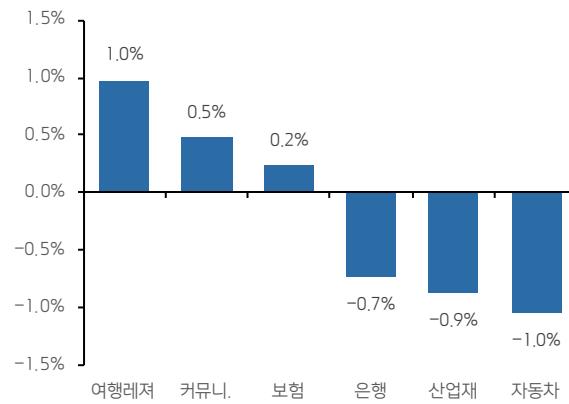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라이징더 당선인은 대만을 방문한 미국 대표단과 면담하며 '반중 친미'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 총선 직후 미국 대표단이 대만을 찾아 친미 성향의 라이 당선인과 차이 총통에게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언급한 것은 차기 정부에도 대만을 향한 지원을 이어겠다는 의미로 해석. 그러나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라이징더가 도발하면 "경제·군사·외교적 압력을 가하겠다"고 압박.

유로스톡스50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25.99	+0.04%	USD/KRW	1,320.16	+0.49%
코스피 200	339.24	+0.3%	달러 지수	102.59	+0.18%
코스닥	859.71	-0.96%	EUR/USD	1.10	+0%
코스닥 150	1,346.34	-1.66%	USD/CNH	7.19	+0%
S&P500	4,783.83	+0.08%	USD/JPY	145.74	+0.01%
NASDAQ	14,972.76	+0.02%	채권시장		
다우	37,592.98	-0.31%	국고채 3년	3.195	-0.2bp
VIX	13.25	+4.33%	국고채 10년	3.295	-1bp
러셀 2000	1,950.96	-0.23%	미국 국채 2년	4.144	+0bp
필라. 반도체	4,052.43	-0.38%	미국 국채 10년	3.939	+0bp
다우 운송	15,470.53	-0.41%	미국 국채 30년	4.175	+0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454.68	-0.57%	WTI	72.5	-0.25%
MSCI 전세계 지수	724.77	+0.33%	브렌트유	78.3	+0.01%
MSCI DM 지수	3,168.31	+0.35%	금	2059	+0.36%
MSCI EM 지수	996.30	+0.16%	은	23.39	+0.26%
MSCI 한국 ETF	61.36	-0.28%	구리	378.4	+1.1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28%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36%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2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8.1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연이은 조정이 만들어낸 밸류에이션 매력 등으로 인한 저가 매수세 유입 가능성
2. 엘앤에프의 어닝쇼크가 2차전지주에 미치는 영향
3.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 유지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현재 CME Fed Watch 상으로는 3 월부터 시작해 연내 총 6 회 인하 컨센서스가 변하지 않은 상황.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주요 투자은행들의 컨센서스가 4~5 회 인하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시장 참여자들 간에도 연준 정책 경로 전망을 둘러싼 간극이 벌어져 있음을 시사.

연초 이후 증시 모멘텀 약화, 금리 변동성 확대, 혼재된 결과를 낳았던 12 월 CPI 와 PPI 등의 이벤트를 치렀음에도 아직까지 이 간극은 잘 메워지지 않고 있는 모습. 결국 금주에도 소매판매, 소비심리지표, 연준 인사 발언 등을 통해 간극 메우기 작업이 진행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증시는 개별 업종 장세 성격을 보일 것으로 예상.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생산자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 큰 이변이 없었던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도, 바이오, 이차전지, 엔터 등 코스닥 중심의 매도 물량이 출회됨에 따라 혼조세로 마감(코스피 +0.04%, 코스닥 -0.96%).

금일에도 낙폭 과대 인식성 매수세 유입 지속, 양호한 외국인 수급 환경에도, 금리인하 가능성을 일축한 ECB 위원의 발언, 엘앤에프의 어닝쇼크에 따른 2차전지주 수급 변동성 확대 등 장중 상 하방 요인이 공존하면서 제한적인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한편, 8 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중이었던 코스피는 전일 장중에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9 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갈 뻔했으나, 장 막판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은 안도 요인. 기술적으로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종가 기준으로 중기 추세선인 120 일선(코스피 2,516pt 선, 코스닥 854pt)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해당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감했다는 사실 역시 추세 붕괴 우려를 제한시킨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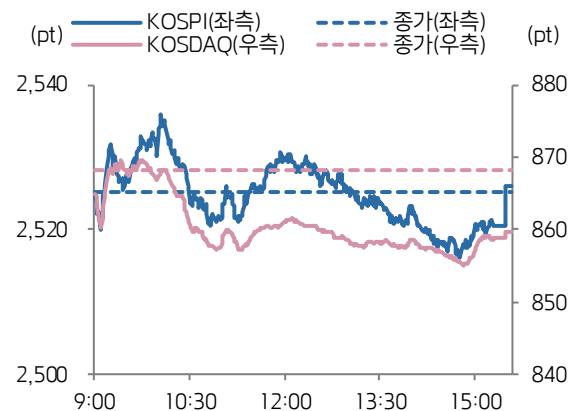
주가가 하방 압력이 우위에 있는 구간에서 바닥을 잡을 때 주로 활용하는 지표인 밸류에이션을 봐도, 하방 지지력은 현재 주가 레벨에서 확보해 나갈 것으로 예상. 일례로 15 일 종가 기준 코스피의 12 개월 선행 PER 과 PBR 은 각각 9.99 배, 0.85 배로 코스피가 2,200 선까지 내려갔었던 10 월 급락장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하락해버린 상황.

최근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엘앤에프 등 주력 기업들의 4 분기 어닝 쇼크 이후 이익 전망 하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12 개월 선행 영업이익 전망 1월 5일 267 조원 → 1월 15일 262 조원), 주가 하락 정도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이 오히려 국내 증시의 진입 매력을 재차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 1월 이후 기관이 6.2조원(은행 -2.7조원, 증권/선물 -2.0조원 등) 순매도하면서 주된 매도 주체로 부상하긴 했지만, 사실상 주포 역할을 하는 외국인은 2.5 조원 순매수하면서 11 월(+2.9 조원), 12 월(+3.0 조원)에 이어 3 개월 연속 순매수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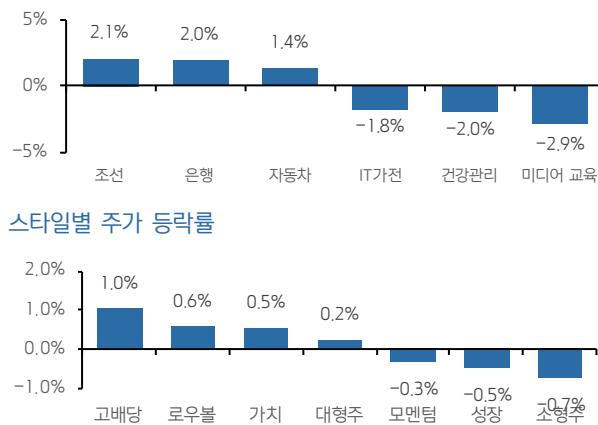
물론 삼성전자 블록딜 및 옵션만기일 영향으로 1 월 11 일 2.2 조원 순매수를 한 것을 제외 시 3,000 억원대 순매수로 집계되는 만큼, 외국인 또한 1 월에는 순매수 강도가 약해졌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긴 함. 하지만 지난주(1 월 4 일~1 월 10 일)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 증시가 부진한 구간에서 글로벌 주식형 펀드들은 한국은 1.5 억달러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10주 연속 순매수 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 같은 기간 대만(-3.5 억달러), 중국(-7.8 억달러) 등 아시아 증시 전반에 걸쳐 6.9 억달러 순매도를 기록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이 강튼 외국인의 상대적인 한국 주식 선호 현상이 수급 상 지수 하단을 지지해줄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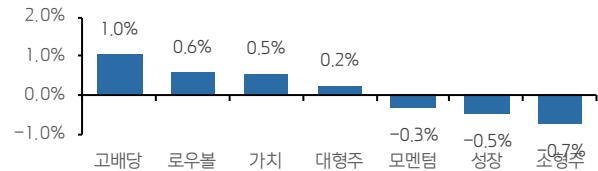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